제950호 1989년 3월 4일 창간 2007년 7월 15일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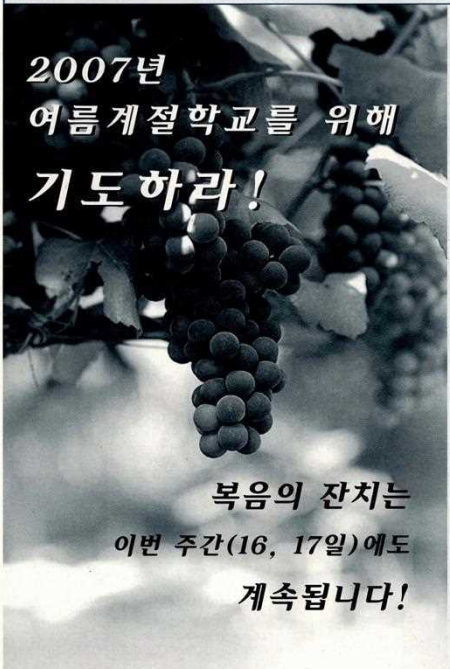
신령한 에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 : 양재웅



현재 각 교회학교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성령의 도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청년1부는 충현기도원, 에바다부는 제2교육관에서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영아 · 유아 · 유치 · 유년 · 초등 · 소년부 그리고 사랑부 및 청년2부는 17일(화)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이 복음의 잔치를 통하여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골 1:23)

특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교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은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나와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학교와 수련회 진행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단지 담당부서와 선생님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져야 할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영아 · 유아 · 유치 · 유년 · 초등 · 소년부 성경학교 당일 먼 곳에서 오는 학생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 되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찬양집회)

누가 우리의 일정을 정하는가?

"하나님, 어디든지 가라하시면 가겠습니다만 아프리카만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만큼 아프리카를 무서운 땅으로 생각하던 시절의 일화이다.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의 6개월 된 아들이 어느 날 심한 열병에 걸렸다. 젊은 선교사 부부는 이곳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주민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떠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다. 이 John & Cufa Halls 선교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30년 이상을 그곳에 살면서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였다. 이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여 졌던 것이다.(마 5:16) 이 선교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린 자들이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 성경은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한다.(잠 19:21)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계획하며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목적을 따라 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잠 8:34~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은 신성한 목적이 있다. 선교를 가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도록 인도하신다.(고전 12:4~7)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삶의 목적을 설명한다.(엡 6:12) 성령께서는 새 사람이 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빌 1:27,29)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성령님은 은혜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우신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 행동할 때에 우리 주위의 믿지 않는 자들은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과연 기독교가 인간의 삶을 바꿀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현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평안과 이익을 추구하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한 기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마 16:24~27) 이러한 교회는 영원한 천국백성의 삶을 사는 길을 막아버리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는 결과를 내고 만다.(요일 2:15~17)

세상과 타협하는 기독교의 흐름은 결국 성경을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눅 17:1,2 ; 갈 1:7~10) 이런 우리를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무슨 이유로 기독교를 택하겠는가?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켜주신다.(요 17:14~17)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때에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뒤로 제쳐 놓고 현실에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자기중심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딤전 6:3~5)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의 삶의 선택의 간증을 언급한다.(딤전 1:15,16 ; 갈 6:14,17)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자기들의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충고하고 있다.(빌 2:19~21) 우리들은 모두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뜻과 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결정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렘 1:5 ; 사 44:24) 여호와께서는 진실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 길을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실수할 때 도와주신다.(시 37:23,24)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을 주며 또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반대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믿고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 이 세상은 냉정하고 용서함이 없는 잔인한 곳이다.

초대 교회 시절의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 불과 6년 후에 순교를 당한 은총의 자녀였다. 그는 화형에 처벌당함이 선고 되었다. 그 당시 화형에 처하는 자들은 형틀에 못을 박히는 것이 상례였다. 화형의 고통이 너무 참기 어려워 화형장에서 뛰쳐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폴리갑은 못 박히는 것을 거절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였다. 마지막 화염이 꺼질 때까지 그는 형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폴리갑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히 13:20,21)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여 타협의 시험으로 사탄이 공격할 때에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엡 6:6) 진실로 신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기를 갈급해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항상 보여주실 것이다.(시 119:105) 아멘.

Sermon for Next Sunday

WONDERFUL MISSIONARY CHURCH

(19)So then those who were scattered because of the persecution that occurred in connection with Stephen made their way to Phoenicia and Cyprus and Antioch,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to Jews alone. (20)But there were some of them, men of Cyprus and Cyrene, who came to Antioch and began speaking to the Greeks also, preaching the Lord Jesus. … (29)And in the proportion that any of the disciples had means, each of them determined to send a contribution for the relief of the brethren living in Judea. (30)And this they did, sending it in charge of Barnabas and Saul to the elders. (Acts 11:19~30)

The church at Antioch was an amazing church! Its members were true believers with mighty missionary hearts. At first, only the Jews in Antioch heard the gospel, but when the Gentiles in this city heard it, they believed and God made them a wonderful living church. Antioch quickly replaced Jerusalem as the number one Christian city, and was the center of the early missionary activities. In this young church, the followers of Christ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and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 (v. 26) They were a gracious church that loved missions. They sent out great missionaries. Our church also loves missions, and we have sent out over 9,500 missionaries. We need to learn from the Antioch church, so that Choong Hyun can be just as useful, if not more so, for Jesus Christ.

This wonderful missionary church began when Christ's followers scattered abroad because of the severe persecution that occurred in connection with Stephen. (v. 19) Initially, these believers preached the Lord Jesus to Jews only, but a few began preaching the word to Gentiles,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a large number who believed turned to the Lord."(v. 21) The Gentiles' response was so great that the news about them reached the ears of the church at Jerusalem. They heard that this church was a living church, not a dead church filled with social dances and bingo games. The church at Jerusalem sent Barnabas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Then when he arrived, and witnessed the grace of God, he rejoiced and began to encourage them all with resolute heart to remain true to the Lord; for he was a good man, and full of the Holy Spirit and of faith. And considerable numbers were brought to the Lord."(vv. 23&24) He saw that this church had the word of God, and sought after Saul to help minister to them. Saul became one of the key leaders of the Antioch church, "And for an entire year they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considerable numbers…."(v. 26) True Christianity activity was taking place at this church.

This wonderful missionary church was a spiritually working church. They had prophets and teachers who ministered to the Lord and fasted. (Acts 13:1&2) Its members were learning the word of God, taking care of each other, praying, and listening to the Holy Spirit. Their hearts were about proclaiming the gospel, and they obeyed God's word. God sent Barnabas and Saul to them, and this church greatly loved them, and when God wanted to send them away for His purposes, they let them go. They heard the Holy Spirit's voice,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Acts 13:2) The church at Antioch fasted and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Barnabas and Saul. (Acts 13:3) They sent them away with hearts for the Lord, not themselves. Indeed, they acted like a true spiritual church.

This wonderful missionary church believed and lived Jesus' Great Commission,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Mt. 28:19) They sent out missionaries, "So, being sent out by the Holy Spirit, they went down to Seleucia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Cyprus. When they reached Salamis, they began to proclaim the word of God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 and they also had John as their helper."(Acts 13:4&5) In this 21st century, congregation members all over the world are becoming fewer and fewer. Churche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maintaining themselves, and many do not even contemplate sending out missionaries. Some churches do not even want to send out missionaries. These churches are absolutely different than the Antioch church. They complain that they do not have the money to spend on missionaries or they cannot find any missionary leaders. They say no one wants to go, and those that do cannot find the support money. Some churches that even have money prefer to spend it on educational resources, technology, pastor's homes, and various other needs. They do not think about sending out missionaries. I hope Choong Hyun's true heart's desire is to always send out missionaries, no matter what the cost.

My dear friends, God can use us if we continue to preach Christ, keeping the church filled with spiritual, not worldly, activities, and sending out missionarie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f we continue to do these things, then this church will definitely be doing God's work. The world is changing, but the word of God never changes. Souls are rotting and dying every day, and this church, this life, is about saving and nourishing them. Every church should be a wonderful missionary church, and any church that is not, should not be a church. Amen.

다음 주일 설교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19)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9)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1:19~30)**

김성관 목사

안디옥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참 신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것은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삽시간에 안디옥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가장 부흥하는 기독교 도시로 성장했고 초대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26절) 안디옥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자비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교회로 쓰임 받으려면 안디옥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안디옥교회의 시작

안디옥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한층 심해진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19절)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21절) 이방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대단했고 마침내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교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안디옥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23,24절)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 후 사울은 안디옥교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26절) 참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충만한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성령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행 13:1,2)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돌아보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안디옥교회는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려 할 때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행 13:2)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행 13:3)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접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안디옥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그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행 13:4,5)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느라 급급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선교사 파송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 교회는 안디옥교회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들은 선교 사역에 쓸 자금이 없다든지 보낼 만한 선교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을뿐더러 설사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후원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금이 넉넉한 교회는 그것을 선교보다는 교육 자료, 기자재, 목회자 사택 등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충현교회는 경비에 연연하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에 더욱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풍성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에 힘쓴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타락하고 죽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들을 구해내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7. 11.)

지상명령

(마태복음 28:16~20)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실패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고, 부활 후에 그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막 14:27,28)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마 28:16)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는 "가라"는 지상명령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자 하신 것은 지상명령 때문이었다. 지상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게 된다.(롬 14:12)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역을 검증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신다. 우리의 명예, 물질, 자녀,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지상명령 때문이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은 아닌가?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회개하자.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자. "교만한 맘을 내 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찬 330장)

지상명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다.(마 28:18) 이 땅에는 병든 자, 슬픈 자, 저주 받은 자로 가득하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복음을 증거 해야 한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6) 십자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럼에도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며 그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자.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찬 500장)

모든 백성에게 구주를 밝혀주다

지상명령은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족속이다.(마 28:19)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져야 한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놀랍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항상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롬 3:23) 우리의 실력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영생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롬 6:23)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십자가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이 드러난다.

모든 자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는 "담갔다가 일어나는 것"이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행 2:41) 과거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다.(행 8:36~38)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던 사울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닫고 세례를 받았다.(행 9:18)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전 2:2)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 역시 세례를 받았다.(행 10:45,48)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마 28:20)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지상명령에 순종하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자.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자. 생명과 건강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찬 273장)

구원받은 것에 진정 감사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신다. 우리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찬 151장)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믿음으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자.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9교구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9교구는 일꾼들이 복음으로 하나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지역장·부지역장·구역장·권찰이 하나되어 각 가정의 신앙 형편과 자녀들의 교회학교 출석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9교구는 631명의 성도, 28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 교육관 407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교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교구가 개편된 후로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잃어버린 양들과 잠자는 영혼을 찾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9교구 모든 식구들은 매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 질병의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짝 믿음 가정'(남편만 신앙생활 하는 경우나 아내만 신앙생활 하는 경우)을 중심으로 온 식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자녀들이 해당되는 교회학교에 출석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과 단독세대들은 매주 2회 이상 전화로 심방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약한 남성구역 활성화와 신혼부부들이 교회에 잘 적응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주변 전도와 더불어 사랑들이 봄비는 교구 내 지역인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입구, 한강시민공원, 강변역, 건대입구역, 옥수역, 왕십리역 등을 중심으로 전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철구(장로, 9교구장)

동 행

성령님은 우리 팀을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되게 하셨다. 팀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팀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비하신 단기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때마다 예비하신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학교에서, 시골 마을에서, 수상 마을에서, 무슬림 마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적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끝까지 들었다. 특히 시골 마을은 집집마다 개가 많아 전도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담대히 복음만을 전했다.

어느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쳐다보기만 하여 부인에게만 전도지를 주며 영접기도를 하였다. 남편은 끝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방 문턱 사이로 다시 남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왼팔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아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주님께서는 주일 마지막 사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번 선교는 준비과정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미리 계획된 사역지 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신 지역으로 갔고, 거기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해 둔 영혼들을 만났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어눌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사랑의 하나님! 사역 기간 중에 만난 여러 영혼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복음의 씨앗이 60배, 100배 퍼져 밀알의 결실을 맺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손영숙(집사, 12교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물에 빠져 헤메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3,1,2,4교구 연합

* 아침, 저녁 예배 때마다 나눈 말씀이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택한 백성과 준비된 영혼은 확연히 구분되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하는 현장에서 복음에 관심을 가진 어느 한 사람이 눈동자를 반짝였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드렸다. *(김혜정 집사)*
* 가끔씩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피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어떤 마을은 주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곳에도 씨 뿌릴 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는다. *(오수미 성도)*
* 들려주는 찬양을 잘 따라하는 어린아이들의 눈망울과 입술은 천사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가르쳐주는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이쁘게 보일까 생각되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짚어 주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순종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 순종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다. *(이혜경 집사)*
* 시내 거리가 빨간색 깃발로 온통 펄럭이고 있었다.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갈 수 없어 전도문장과 일반문장을 외웠다. 시골 마을에 몇 집씩만 전도하고 급히 떠나오곤 하였다. 사람들이 순수하여 순전히 받아들이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에서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자 신고한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였다. *(조연숙 권사)*
* 우리 팀은 찬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축호전도를 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많은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아멘. 아멘."하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팀원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셨고, 감시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선한 협력자가 되게 하셨다. *(김점례 집사)*
* 주님의 마음으로 다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치료하게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였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셨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만드셨다. 이번 선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역이었다. *(나오현 집사)*
*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충만하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은혜의 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다. 그곳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인들의 입술을 통해 작게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물에 빠져 헤메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김원섭 집사)*
*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거기에 있었다. 현재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임태수 집사)*
*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어 우리 모든 팀원이 손을 잡고 기도한 후 우리가 가진 소독제로 발을 깨끗이 닦아주고 기도해 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술을 마시며 우리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중지하고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두 자녀 모두 손잡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주님의 역사는 놀라웠다. *(이부성 안수집사)*

전도는 사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각 지회 전도팀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십자가 복음과 전도지를 들고 전도회 별로 맡은 지역을 향해 교회 주변전도를 나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해 주실까?' 마음이 설레며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부르며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차기에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전도지를 받으시는 분들의 모습이 천태만상입니다. 짜증을 내는 분도 있고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하며 계속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지를 주자 벌컥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잡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이분이 예수님 대속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던 그 분이 "충현교회에서 나왔나?"고 관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도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내 이웃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을 복음을 통하여 밝히 알아갈 때 우리는 내 이웃에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며 그 이웃들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믿습니다.

조증덕(안수집사, 8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3일(화) ~ 7월 11일(수)	11교구	김복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9일(월) ~ 7월 17일(화)	15 · 14 · 18교구 대학부 연합	유종석
7월 9일(월) ~ 7월 17일(화)	23교구	이호일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6일(월) ~ 7월 24일(화)	1 · 2 교구 · 대학부 타교 연합	김신국

매순간 죽게 하소서

나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주님과 거래하려 하였습니다.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먼저 믿었음을 자랑하는 내 중심에는 주님보다 자아가 살아서 나중 된 형제들을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이같이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처럼 형제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나타내려 했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형제들보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순간순간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한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본 교회를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죽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낙오되고, 궁핍할지라도,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걱정 근심 두려움 등 세상에 매여 있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살아서 보잘것없는 세상 지식과 경험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더 회개하며 낮아지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순간마다 간구합니다.

현준봉(안수집사, 22교구)

보너스 생명

어린 아이들과 젊은 부부로 구성된 우리 구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곳에 이사 와서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구역이었는데 두 딸을 데리고 버스를 두 번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구역 식구들이 많아져서 두 구역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운데 구역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구역 식구들은 남편과 자식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겸손한 식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특히 구역식구들이 허물 많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역장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남편이 새벽기도회를 가던 중 마주 오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남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 큰 외상없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기도를 하던 중에 "앞으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나의 곁으로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보너스 생명이니 귀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그 날까지 우리 가족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고 전하는 구역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명희(집사, 10교구)

말씀의 승리

주님을 처음 만난 이래로 '그분은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날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하며 참으로 안일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작년 초 선교를 간다고 준비하는 어린 아들의 열심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누군가 작은 돌맹이라도 던진 것처럼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주소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구원은 확실한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괴로워하며 발버둥치고 있을 때 주의 일을 권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돌멩이를 던지신 분의 정체가 확실해졌습니다. 해마다 권유받던 일이었고 그때마다 시간 없음과 부족함을 이유로 움직이지 않던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리만치 더 이상은 선교를 피할 수 없음을 강하게 느꼈고 순종했습니다. 솜고 싶었습니다.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로 하여금 제 것으로만 알았던 가족들도 또 세상을 향한 욕심도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정주부가 선교는 무슨 선교, 남편과 자녀들에게 충실해야지!' 하던 저에게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준비를 통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선교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만날 땐 저의 지난 날이 생각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오직 주님만을 전하다 순교하였던 스데반 집사를 만날 땐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동시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저와의 일대일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만 전했던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제 속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되새겼습니다. 특히 지난 2차 청지기훈련을 통해 자기부인으로 죄인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겸손히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예수님이 자꾸 자꾸 살아나십니다. 아멘.

김영희(집사, 13교구)

내가 한다. 너는 순종만 하라!

모태신앙인인 나는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신자, 참 신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주 잘 알고 있기에 나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일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 찬송, 기도, 성경통신, 성경읽기 그리고 새벽기도까지도 다분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나를 자랑함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왕비병 중증이야, 난치병이야' 하며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교묘하게 나의 자랑을 끼워 넣기에 점점 익숙해져갔습니다. 자랑하고픈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의 풍성함을 원수 나라에 자랑한 히스기야 왕, 잠시 교만한 마음에 빠져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 왕의 실수처럼 너무도 쉽게 교만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새벽기도회에 다른 이보다 일찍 나오고자 하는 것도,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어떤 때는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죄로 가득한 모습임에도 주님은 저를 권사로 피택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더욱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매 강의와 과제물, 여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내가 한다. 너는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보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자랑, 나의 부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십자가의 일꾼 되길 기도합니다.

조인숙(집사, 15교구)

*현재 피택자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교육을 통하여 보혈로 거듭난 십자가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자.

2007년 전반기 충현장학생 간증

꼬여 있는 마음을 푸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2005년 후반기 처음으로 충현교회 장학생이 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산만하고 정신없고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주님은 부르셨다.

장학생은 금요찬양집회와 주일찬양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웠다.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기뻐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출석 체크를 하는 것도 불평했고, 모든 걸 자발적인 순종보다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따랐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꼬여 있는 마음을 푸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작년에 나라는 죄 된 존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뒤 바뀌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한 놀라운 일을 겪게 하셨다. 그 후로 계속 선포되는 진리, 그 자체인 복음에 반응하게 하셨다. 금요찬양집회와 주일찬양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완전한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고 확합하게 하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의 믿음이 예배 시간에 선포 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변화되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 놀랍다! 정말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장학생이라는 통로를 통해 예배라는 놀라운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전심으로 반응할 것이다. "나를 복음이라는 완전하고 놀라운 가치로 부르신 주님, 그 렇기에 저는 복음의 가치 이하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현국(대학부)

*현재 후반기 충현장학생을 선발 중에 있다. 천국일꾼이 선발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을 위한 은총의 공간

충현기도원 수양관 기공식

수양관 설명

기공식 예배

수양관 터

충현기도원 수양관 기공식이 지난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첫 열매가 맺히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히 13:18) 수양관은 기도원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영육의 쉼을 얻고 복음으로 단련되는 은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실내에 구비된 체육시설은 기후에 관계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존도식의 숙박시설은 가족단위로 오셔서 더욱 편안하고 자유로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후 4:15) 이제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시공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수양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순조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을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이 모든 일이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통로가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고전 14:15)

내 영혼이 주를 찬양

큰 바람과 물결이 내게 닥칠지라도

학교 시험,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 그리고 내적인 갈등은 나에게 큰 짐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도 광풍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나 또한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나약하며 세상적인 인간이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으며 원망했던 제자들, 나는 내 괴로움의 원인을 예수님께 돌렸고 예수님을 원망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며 하필이면 왜 나인가?"라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라는데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자꾸만 예수님을 원망했다. 모진 풍파를 만난 내 눈에는 당장의 괴로움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해 놓으시곤 이대로 놔 두실 거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재촉하는 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꾸짖으시기는커녕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더욱 감싸 주셨다.

예수님은 힘들고 지칠 때, 내 안의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고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다. 나는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였다. 그렇지만 기도의 울부짖음으로써 주님을 만날 때, 그 조각배를 꽉 붙잡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커다란 닻이 있었기에 난 다시금 항해를 할 수 있었다. 이제, 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바로 나이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뒤집히지 않음을 믿는다. 그저 믿고 의지하면 이깟 고난쯤이야 금세 극복할 수 있음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전 10:13) 또한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케 하시며 그 시험을 당함으로써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 모든 시련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며 모든 풍랑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꼭 붙잡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찬 419장)***

조수빈(고등부, 예본 찬양대)

*예본 찬양대는 고등부 예배(오전 11시)와 주일 5부(오후 3시) 예배 시에 찬양한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40	김동언	5	장년1부	강윤옥(5)
1241	송규영	13	청년1부	김민정(11)
1242	유시동	11	장년2부	황학규(15)
1243	어게	25	외선부	장응숙(21)
1244	스웨	25	외선부	장응숙(21)
1245	따프카	25	외선부	장응숙(21)
1246	칭게	25	외선부	장응숙(21)
1247	어터	25	외선부	장응숙(21)
1248	토아	25	외선부	장응숙(21)
1249	최순자	12	장년3부	김정임(6)
1250	양승용	12	장년3부	김정임(6)
1251	최수연	23	청년2부	윤성한(23)
1252	탄	25	외선부	신교선(24)
1253	이연경	24	대학부	장경옥(6)
1254	유희자	24	장년2부	장경옥(6)
1255	최근원	13	고등부	
1256	홍현승	5	대학부	오동원(5)
1257	정숙향	4	장년1부	공선희(4)
1258	배갈마	25	외선부	홍순길(2)
1259	아노카	25	외선부	홍순길(2)
1260	염동식	9	소망부	안창덕(1)
1261	백서영	2	대학부	이성은(12)
1262	길숙자	2	장년3부	강호숙(1)
1263	정기호	10	청년1부	김민정(11)
1264	오수지	12	대학부	최수자(3)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 임

1.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일 시 : 18일(수) 1부 예배 후
   장 소 : 갈릴리홀

별 세

1. 김외선 씨(강은회 집사의 시모, 5교구 선경우성구역) / 8일 별세, 11일 장례
2. 장영린 타교집사(장길남 안수집사의 부친, 김은심 권사의 시부, 7교구 풍납2구역) / 9일 별세, 11일 장례

주소변경

1. 박종태 안수집사 · 김영실 집사(관악구 봉천1동 649-55번지 301호)

◆ 수화 성경공부

일 시 : 6월 24일(주일)~8월 12일(주일), 8주간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2007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부 서	일 시	장 소	부 서	일 시	장 소
청년1부	7.16(월),17(화)	충현기도원	초등부	7.17(화)	초등부실
에바다부	7.16(월),17(화)	에바다부실	소년부	7.17(화)	소년부실
영아부	7.17(화)	영아부실	청년2부	7.17(화)	청년2부실
유아부	7.17(화)	유아부실	사랑부	7.17(화)	사랑부실
유치부	7.17(화)	유치부실	고등부	7.23(월)~25(수)	충현기도원
유년부	7.17(화)	유년부실	중등2부	7.26(목),27(금)	충현기도원

충현기도원 촉탁직원 모집

1. 모집부문　기도원 관리직(기도원에 상주하면서 영선 · 미화 · 경비 · 운전 등의 다양한 업무를 감당 하실 분)
2. 자　　격　세례교인(남, 만 60세 이하)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031-766-5425

7월 충현 기도의 창

① "서로 사랑하자"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⑤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⑥ 2007년 여름 계절학교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⑦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112호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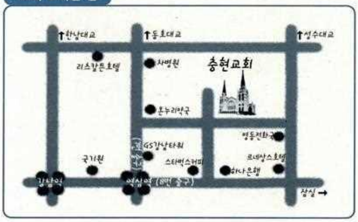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21 (토)	22 (주일)
설교자/기도자	최종철/차신득	하종철/송한천	안치원/김황진	강명구/안세현	양재웅/전진국	황진섭/전은희	유재진/김정자
설 교 본 문	잠 25:1-10	잠 25:11-19	잠 25:20-28	잠 26:1-10	잠 26:11-19	잠 26:20-28	잠 27:1-10

예배담당 안내 (7/18-7/22)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찬 양
7/18	수요 I	선교를 사랑하자 (고전 13:1~3) 김성관 목사	장 훈	백숙자	이 기쁜 소식을 (호산나 찬양대)
7/18	수요 II	은 총 (삼하 9:1~10) 박인기 목사	양태선	박애희	나의 영광 십자가 (실로암 찬양대)
7/20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유성택		예루살렘 찬양대 / 소프라노 김희숙 / 가브리엘 여성중창단
7/22	주일 I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 11:19~30) 김완수 목사	탁정헌	김환기	〈예배 전 찬양〉
7/22	주일 II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 11:19~30) 윤수일 목사	이성진	이 훈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 / 바이올린 이에스더(임마누엘 오케스트라)
7/22	주일 III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 11:19~30) 김성관 목사	임현덕	전홍렬	주 예수 넓은 사랑 외 / 바이올린 박 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7/22	주일 IV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 11:19~30) 이재영 목사	하종철	배춘식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외 / 아멘 여성중창단(지도 : 전덕란)
7/22	주일 V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 11:19~30) 정충신 목사	최종철	이태식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외 / 소프라노 이은주(벧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7/22	주일찬양	진리와 사랑 (요 3:16) 김성관 목사	유현철	백봉선	가브리엘 혼성중창단 / 임마누엘 찬양대 / 9교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1:00	금요찬양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 바 다 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6:00 (금) 저녁 7:00-저녁 9:3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 현 복 지 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김은호 제1교구위원장	노광헌 당회서기	이병학 사랑부장	이 훈 예배위원장	남선우 에바다부장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최무길 감사위원	이창호 예배위원	차신득 선교위원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찬양위원장	임무천 제2교구위원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기획위원	이정우 봉사위원
김단용 당회부서기	한송규 예배위원	김영수 동산부장	김환기 기획위원장	원웅철 기획위원
이형수 예배위원	안동현 예배위원	황의만 12교구장	김구형 14교구장	최윤덕 예배위원
이계인 실로암찬양대장	박덕양 11교구장	이태식 장년1부장	박홍규 감사위원장	권명옥 봉사위원장
조종환 제1교육위원장	배춘식 차량안내부장	김영달 예배위원	이실호 기도원관리부장	최지윤 시설영선부장
노영한 19교구장	박철구 9교구장	정청길 21교구장	신상수 20교구장	고제승 7교구장
강철형 전도위원장	김영은 기획위원	이달옥 영아부장	장철환 중등3부장	김승곤 탁아부장
함철주 17교구장	윤석민 기획위원	정선현 제2교육위원장	안석현 4교구장	김연근 건축위원장
김창국 유년부장	김중선 청년2부장	임창식 임마누엘찬양대장	김은철 재정위원	진학래 24교구장
김신국 1교구장	전계식 재정위원	장승규 10교구장	전은배 중등1부장	석영식 16교구장
구재완 3교구장	송두섭 8교구장	최차용 예배위원	신선길 제3교육위원장	유상태 유아부장
박상대 13교구장	김규석 6교구장	신광철 선교위원	정창수 2교구장	엄복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이상석 15교구장	오순도 외선부장	양기수 5교구장	김태식 18교구장	

■ 부목사

박인기 에바다부	류병회 13교구	여국근 선교위원회	안창덕 15교구	정진호 대학부
김익환 3교구	장 훈 4교구	임현덕 8교구	이회식 7교구	최종철 21교구
하종철 5교구	안치원 2교구	정충신 22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성진 18교구
최성규 24교구	이재영 1교구	이경준 16교구	김준회 9교구	윤수일 10교구
황진섭 20교구	유재진 새가족양육부	강명구 11교구	전성원 선교위부지도	김철규 청년1부
이용진 외선부	양태선 12교구	유성택 17교구	유현철 19교구	탁정헌 고등부
김완수 14교구	최성득 6교구	최강전 23교구		

■ 여전도사

윤인숙 11교구	김연식 16교구	홍순애 17교구	이옥주 5교구	김말자 6교구
안태순 3교구	김정연 1교구	강덕필 20교구	최문실 8교구	전은희 10교구
김정자 14교구	김정희 18교구	이복순A 21교구	류진희 대학부	한성임 23교구
임태주 15교구	강영미 22교구	옥미자 9교구	이복순B 4교구	강호숙 2교구
전영희 19교구	이혜숙 7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 교 사 송요한